

지역분류	아시아 / 스리랑카
보도일/기관명	2017. 2. 16.(목)/ phys
제 목	구글의 룬 프로젝트, 스리랑카에서 법적인 문제 발생
출처(URL)	https://phys.org/news/2017-02-google-internet-balloon-snagged-sri.html

【 개 요 】

- 별론을 통해 전세계 원격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구글의 모험인 룬 프로젝트가 스리랑카에서 뜻하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
 - 룬 프로젝트는 로밍 별론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버리지를 제공하여 스리랑카의 21백만명이 웹에 접속하도록 하는 계획으로, 원격의 위험지역도 접속에 포함하고 있음

【 주요내용 】

- 구글의 룬 프로젝트가 테스트를 한지 1년이 되었고, 스리랑카 규제기관은 국제적인 규정의 위반으로 구글에게 항공기 모험 용도로 주파수를 분배할 수 없었음
- 통신부처 Harin Fernando는 ITU에서 스리랑카의 공공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 동일 주파수를 구글이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함
 - Fernando는 결국 법적인 이슈가 되었고, 구글 뿐만 아니라 정부도 ITU에 로비를 하고 있으나 만일 실패할 경우 구글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다른 국가로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
- 구글의 거대한 헬륨으로 가득한 별론은 지상 기반의 전자통신 타워의 접근을 넘어선 지역에 고속의 인터넷을 제공하는, 떠다니는 이동 기지국으로 동작함
 - 상업용(민간) 비행기 고도에 두 번째로 성층권을 돌아다니는 3개 별론중 첫째는 남미 이후 1년 전에 스리랑카 영공에 진입함
- 스리랑카 정부와 구글은 어떠한 자본 투자없이 프로젝트에 셀룰러 주파수를 공유하는 것으로 25%의 지분을 받은 Colombo와 합동 벤처를 계획했음
 - 비록 당국은 착륙 제어라고 설명했으나, 지난 해 테스트한 처녀 비행한 별론 중 하나는 스리랑카의 차(tea) 농장에서 발견이 되었음
 - 스리랑카의 약 1/3은 인터넷에 정기적인 접속을 하고, 룬 프로젝트를 통해 부풀려진 것으로 예상됨
- 한편, 1989년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중 휴대폰을 도입한 첫 국가이며, 3년 전에 4G 네트워크를 공개한 지역적인 선두주자이기도 함

↑ 목차로 이동